

少陽人 亡陰證의 治方에 대한 考察

이지원 · 이준희 · 고병희 · 이의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the Therapeutic Herbal Medications for Soyangin Mangeum Symptomatology

Ji-won Lee, Jun-hee Lee, Byung-hee Koh, Eui-ju Lee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1. Background

This is the first documented study on the four medications for the Mangeum symptomatology (亡陰證) in the Soyangin disease category. The four medications, Hyeongbangsabaek-san (荊防瀉白散), Jeoryeongchajeonja-tang (豬苓車前子湯), Hyeongbangjihwang-tang (荊防地黃湯), and Hwalseokgosam-tang (滑石苦蔘湯), were comparatively analyzed on their compositive principles and respective symptomatologies.

2. Methods

Previous literature, including classical works on earlie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ifferent editions of *Donguisusebowon* and *Dongmuyuga*), were reviewed for relevant material on the Mangeum medications.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Hyeongbangsabaek-san (荊防瀉白散) is used in pathologies of early stages of invasion of the internal heat in the lower-most burn-center (locus related to the Kidney system).
- 2) Jeoryeongchajeonja-tang (豬苓車前子湯) is used when pathogenic dampness-heat invades the lower-most burn-center (locus related to the Kidney system).
- 3) Hyeongbangjihwang-tang (荊防地黃湯) is used to treat deficient heat involving injury of the lower-most burn-center (locus related to the Kidney system).
- 4) Hwalseokgosam-tang (滑石苦蔘湯) is used when the lower-most burn-center (locus related to the Kidney system) is in the early stages of exhaustion, especially accompanied by concomitant dampness-heat.
- 5) The Mangeum symptomatology (亡陰證) was fully understood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1901 Sinchuk edition (辛丑本) of *Dong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Key Words: Mangeum symptomatology, Hyeongbangsabaek-san (*Jingfangxiebai-san*), Jeoryeongchajeonja-tang (*Zhulingcheqianzi-tang*), Hyeongbangjihwang-tang (*Jingfangdihuang-tang*), Hwalseokgosam-tang (*Huashikushen-tang*)

• 접수일 2010년 08월 02일; 심사일 2010년 08월 6일;
승인일 2010년 08월 27일
• 교신저자 : 이의주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0 Fax : +82-2-958-9234
E-mail : sasangin@khmc.or.kr

I. 緒 論

사상의학의 素證 및 病證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한의학과는 상이한 점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病證에 대한 치료 역시 기존의 한의학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기본적인 체질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러하며, 또한 한 體質病證 내에서도 表證/裏證/順證/逆證의 분류가 있으며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의 병증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하다¹. 그러한 病證 중 하나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의 亡陰證으로, 이는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四象醫學 고유의 병증이며, 또한 李濟馬의 醫論 중에서도 후대의 저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병증이다².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亡陰證의 治方, 특히 荊防瀉白散·豬苓車前子湯·荊防地黃湯·滑石苦麥湯을 위주로 각각의 특징 및 서로간의 공통점·차이점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유관 선행연구로는 亡陰證과 亡陽證을 기존 증치의학과 비교한 연구 1건³ 외에 치협례 4건^{4,5,6,7} 정도가 있을 뿐이다. 亡陰證의 治方 자체를 심도있게 분석한 기존 연구는 없어 본 연구가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東醫壽世保元』(이하 『辛丑本』)⁸, 『咸山沙村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이하 『甲午本』)⁹,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하 『草本卷』)¹⁰ 등 李濟馬의 저적을 유관내용 중심으로 검색하였으며, 후세의 사상의학 연구가들의 저서도 함께 검색하였다. 이에 亡陰證의 治方에 대한 소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少陽人 亡陰證의 治方과 관련된 내용의 문헌 조사에는 李濟馬의 저서를 비롯 李濟馬 이후 四象醫學 관련 저서를 두루 사용하였다. 참고한 이제마의 저서는 『辛丑本』, 『甲午本』, 『草本卷』, 2종의 『東武遺稿』^{11,12} 등이다. 이제마 이후 四象醫學 관련 저서는 『四象醫學』에 소개된 註釋書와 編譯書, 處方書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일부 문헌을 추가하였다.

2. 일반적으로 1894년 완성된 『東醫壽世保元』의 초고를 『甲午本』, 1900년까지 수정된 원고를 『庚子本』, 1901년 출간된 門人들의 합본을 『辛丑本』이라고 부른다. 本稿에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지칭을 따랐다.

III. 本 論

四象醫學에서 등장하는 亡陰證은 四象醫學 고유의 醫論의 일부로, 특히 이제마의 후대 서적에서 비로소 정립된 病證이다. 따라서 이 亡陰證의 治方에 대한 고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최후에 완성된 『辛丑本』을 먼저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역추적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1. 『辛丑本』의 亡陰證 처방 및 치료

『辛丑本』에서 제시된 少陽人의 병증은 脾受寒表寒病과 胃受熱裏熱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脾受寒表寒病은 少陽傷風證, 結胸證, 亡陰證, 譫語壞證 등을 포괄하는데, 특히 亡陰證은 설사를 주증으로 하는 證으로 身寒腹痛泄瀉 및 身熱頭痛泄瀉로 다시 나누어진다. 身熱頭痛泄瀉의 대표 처방으로는 豬苓車前子湯 및 荊防瀉白散이 언급되며, 身寒腹痛泄瀉의 대표 처방으로는 滑石苦麥湯 및 荊防地黃湯 등이 언급된다.

亡陰證에 대한 서술은 李子健과 朱震亨의 醫論을 소개하면서 시작되는데, 이전 의가에 의해서는 주로 寒證의 범주에서 소개되고 溫煖之劑를 통해 치료되던 腹痛과 自利에도 熱證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¹. 이는 체질적인 접근이라는 새로운 인식체계가 도입되는 시초로 체질에 따라 같은 腹痛自利의 증상에 다른 기전이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각 證의 대표처방으로 身熱頭痛泄瀉에 豬苓車前子湯 및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에 滑石苦麥湯 및 荊防地黃湯이 제시되어진다(Table 1).

1) 9-20 李子健 傷寒十勸論曰 傷寒腹痛 亦有熱證 不可輕服溫煖藥 又曰 傷寒自利 當觀陰陽證 不可例服 溫煖及止瀉藥

Table 1. Mangement medications appearing in *Donguisusebowon (Sinchuk edition)*

병증구분	처방명	처방 구성 및主治
身熱頭痛泄瀉	荊防瀉白散	生地黃 三錢 茯苓 澤瀉 各 二錢 石膏 知母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 右方 治頭痛 膀胱熨躁者 宜用
	猪苓車前子湯	茯苓 澤瀉 各二錢 猪苓 車前子 各一錢五分 知母 石膏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 右方 治頭腹痛 有泄瀉者 宜用
身寒腹痛泄瀉	滑石苦參湯	茯苓 澤瀉 滑石 苦參 各二錢 川黃連 黃柏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 右方 治腹痛 無泄瀉者 宜用
	荊防地黃湯	熟地黃 山茱萸 茯苓 澤瀉 各二錢 車前子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 無論 頭腹痛 痞滿 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

Table 2. Compositions of the Mangement medications appearing in *Donguisusebowon (Sinchuk edition)*

	荊防瀉白散	猪苓車前子湯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
羌活	羌活 1	羌活 1	羌活 1	羌活 1
獨活	獨活 1	獨活 1	獨活 1	獨活 1
荊芥	荊芥 1	荊芥 1	荊芥 1	荊芥 1
防風	防風 1	防風 1	防風 1	防風 1
茯苓	茯苓 2	茯苓 2	茯苓 2	茯苓 2
澤瀉	澤瀉 2	澤瀉 2	澤瀉 2	澤瀉 2
猪苓		猪苓 1.5		
車前子		車前子 1.5		車前子 1
石膏	石膏 1	石膏 1		
知母	知母 1	知母 1		
生地黃	生地黃 3			
熟地黃				熟地黃 2
山茱萸				山茱萸 2
滑石			滑石 2	
苦參			苦參 2	
黃連			川黃連 1	
黃柏			黃柏 1	
主治證	治頭痛 膀胱熨躁者 宜用	治頭腹痛 有泄瀉者 宜用	治腹痛 無泄瀉者 宜用	無論 頭腹痛 痞滿 泄瀉

* 단위는 錢

1) 처방분석

각 처방의 구성을 다시 풀어내어 살펴보았을 때 (Table2) 공통으로 등장하는 약재(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茯苓 澤瀉 各二錢) 및 각각에 고유하게 등장하는 약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羌活·獨活·荊芥·防風·茯苓·澤瀉 등의 약재는 ‘荊防 大清胸膈散風, 羌獨 大補膀胱眞陰’²⁾이라고 하여 降表陰하여 補陰을 하는 藥과 固腎立腎하는 茯苓 및 壯腎而有外揚之勢하는 澤

瀉가 있어 保命之主의 保全과 正氣를 擴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약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茯苓·澤瀉는 少陽人 처방 중 表證에서는 導赤降氣湯·荊防瀉白散·猪苓車前子湯·滑石苦參湯·荊防地黃湯 등에 포함되어 있고 裏證에서는 熟地黃苦參湯·獨活地黃湯·十二味地黃湯 등에 포함되어 있어 병소의 중심이 下焦, 즉 腎局에 근접할 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羌活·獨活·荊芥·防風은 降表陰하여 補陰하는 약재이며 茯苓·澤瀉는 약력을 腎局으로 이끌어주는 약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13,14,15}

(1) 荊防瀉白散

각 처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荊防

2) 荊防地黃湯 熟地黃 山茱萸 茯苓 澤瀉 各二錢 車前子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荊芥 防風 羌活 獨活 俱是 補陰藥 荊防 大清胸膈散風 羌獨 大補膀胱眞陰 無論 頭腹痛 痞滿 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

瀉白散은 生地黃 三錢 茯苓 澤瀉 各 二錢 石膏 知母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治頭痛 勝胱 熒躁者 宜用)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生地黃³⁾ 石膏⁴⁾ 知母⁵⁾가 포함되어 다른 처방과 구별된다. 특히 濕熱을 식힐 수 있는 生地黃의 함량이 3錢으로 높고 胃火를瀉하는 石膏와 熱渴을 제거하는 知母가 1錢씩 포함되어 있어 火熱이 동반되는 證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生地黃은 表證 처방에서는 荊防敗毒散·荊防導赤散·荊防瀉白散, 裏證 처방에서는 地黃白虎湯·陽毒白虎湯·涼膈散火湯·忍冬藤地骨皮湯 등에서 사용되어 비교적 實熱이 왕성하고 아직 腎局 깊숙이까지는 침투하지 않아 熟地黃·山茱萸의 조합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病證(단, 忍冬藤地骨皮湯에서는 熟地黃 없이 生地黃 1錢, 山茱萸 2錢이 사용된다)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石膏·知母와 같은 경우, 表證 처방에서는 오직 荊防瀉白散·猪苓車前子湯에서만 사용되고 주로 裏證 처방인 地黃白虎湯(石膏 5錢)·陽毒白虎湯(石膏 5錢)·涼膈散火湯(石膏 1錢) 등에서 사용되는 조합으로 만성화되기 전의 實證의 裏熱에 사용되는 약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으로 荊防瀉白散·猪苓車前子湯 관련 證에서는 裏熱이 동반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羌活·獨活·荊芥·防風·茯苓·澤瀉 등의 약제의 조합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결국 荊防瀉白散은 腎局 깊숙이 침투되지는 않은 실증의 裏熱이 동반되면서 병소 자체는 어느 정도 腎局으로 옮겨와 邪熱의 울체가 下焦에 발생한 表證의 亡陰證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主治로 제시되어 있는 “治頭痛 勝胱 熒躁者 宜用”에 대해 짚어넘고 가자면, 이것은 腎局(下焦)의 病證이 위태해지면서 腎元의 급박한 소모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인 것에 대한 표현으로 荊防瀉白散에서 生地黃을 고용량으로 사용하여 陰清

之氣를 補하여 이를 빨리 풀어주고자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猪苓車前子湯

猪苓車前子湯은 茯苓 澤瀉 各 二錢 猪苓 車前子 各一錢五分 知母 石膏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治頭痛 腹痛 有泄瀉者 宜用)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猪苓⁶⁾ 車前子⁷⁾ 石膏⁸⁾ 知母⁹⁾가 포함되어 다른 처방과 구별된다. 앞에서 언급된 石膏·知母 외에 猪苓·車前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한데, 味痰 利水通淋 消腫除濕 多服損腎 滌腎之穢하는 猪苓은 猪苓車前子湯과 黃連清腸湯에 포함된 약제로 예탁한 濕熱邪를 제거하는 利水之劑임을 알 수 있으며, 氣寒 溺澁眼赤 小便能通 大便能實하는 車前子는 荊防敗毒散·黃連清腸湯·木通大安湯·猪苓車前子湯·荊防地黃湯·十二味地黃湯에 포함된 약제로 증치의학에서 心·小腸經의 經絡之熱로 해석하였던 鬱結되지 않은 下焦의 熱을 소변으로 풀어주면서 濕熱이 下焦에 混着되었던 것을 해소하는 효능이 있어 소변을 배출시키면서 대변이 적당히 굳게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앞에 언급된 石膏·知母와 羌活·獨活·荊芥·防風·茯苓·澤瀉 등의 약제의 조합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결국 猪苓車前子湯은 만성화되기 전의 實證의 裏熱이 下焦에 들어가 濕熱이 下焦에 混着되어 발생한 表證의 亡陰證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主治로 제시되어 있는 “治頭痛 腹痛 有泄瀉者 宜用”에 대해 언급하자면, 굳이 복통뿐이 아닌 두통을 함께 언급한 것은 猪苓車前子湯이 鬱結되지 않은 下焦의 열로 인해 下焦의 濕熱證 및 병발하는 上部의 熱證을 함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것은 車前子の 溺澁眼赤에 대한 효과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生地微寒 能清濕熱 骨蒸煩勞 兼消痰血 ○生芩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
4) 石膏 苦寒 能瀉胃火 發渴頭痛 解肌立安 ○石膏 爲腎元帥之藥 能驅逐腎元虛弱而 不能制外熱 熱氣侮腎周匝 凌侵於胃之四圍者
5) 知母 味苦 熱渴能除 骨蒸有汗 痰咳皆舒 ○知母 壯腎而有內守之力

6) 猪苓 味痰 利水通淋 消腫除濕 多服損腎 ○猪苓 滌腎之穢
7) 車前 氣寒 溺澁眼赤 小便能通 大便能實
8) 石膏 苦寒 能瀉胃火 發渴頭痛 解肌立安 ○石膏 爲腎元帥之藥 能驅逐腎元虛弱而 不能制外熱 熱氣侮腎周匝 凌侵於胃之四圍者
9) 知母 味苦 熱渴能除 骨蒸有汗 痰咳皆舒 ○知母 壯腎而有內守之力

(3) 荊防地黃湯

荊防地黃湯은 熟地黃 山茱萸 茯苓 澤瀉 各二錢 車前子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無論 頭腹痛 痞滿 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熟地黃¹⁰⁾ 車前子¹¹⁾가 포함되어 다른 처방과 구별된다. 앞에서 언급된 車前子 외에 熟地黃·山茱萸가 포함된 것이 특이한데, 微溫 滋腎補血 益髓填精 烏髮黑髮 補腎和腎하는 熟地黃은 表證에서는 荊防地黃湯에, 裏證에서는 熟地黃苦參湯·獨活地黃湯·十二味地黃湯에 포함된 약재로 表裏를 막론하고 逆證의 범주에서 少陽人의 保命之主를 大補하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性溫 滋精益髓 腎虛耳鳴 腰膝痛止 健腎直腎하는 山茱萸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熟地黃과 배합이 되어 (단, 忍冬藤地骨皮湯에서는 예외) 마찬가지로 表證에서는 荊防地黃湯에, 裏證에서는 忍冬藤地骨皮湯·熟地黃苦參湯·獨活地黃湯·十二味地黃湯에 포함된 약재로 熟地黃의 효능을 보좌하여 健腎直腎하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 언급된 車前子와 羌活·獨活·荊芥·防風·茯苓·澤瀉 등의 약재의 조합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결국 荊防地黃湯은 實熱이 많지 않고 오히려 虛熱이 조장된 證에서 下焦에 濕熱이 混着되고 腎元이 소모되면서 腎局의 偏小 상태가 심화되어 少陽人의 保命之主를 大補하여야 하는 表證의 亡陰證에 사용되는 處方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荊防地黃湯의 主治인 “無論 頭腹痛 痞滿 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는 荊防地黃湯증이 少陽人 表證의 逆證 범주에서 下焦 부위뿐만 아니라 中上焦 부위의 病證으로 확산된 것을 의미하며, 少陽人 병증의 위중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느 체질에서나 體質病證이 악화될수록 寒熱이 錯雜되고 病所가 偏小偏大之臟의 부위에 모두 발생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滑石苦參湯

滑石苦參湯은 茯苓 澤瀉 滑石 苦參 各二錢 川黃連 黃柏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治腹痛 無泄瀉者 宜用)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滑石¹²⁾ 苦參¹³⁾ 川黃連¹⁴⁾ 黃柏¹⁵⁾이 포함되어 다른 처방과 구별된다. 이 네가지 약재는 주로 裏病의 忍冬藤地骨皮湯 및 熟地黃苦參湯에 포함되어 있으며, 黃連 정도가 表病의 黃連導白散·黃連清腸湯·木通大安湯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 네가지 약재의 배합은 특히 주된 病所가 中上焦에서 下焦로 넘어오는 단계에 있을 때의 濕熱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裏熱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앞에 언급된 羌活·獨活·荊芥·防風·茯苓·澤瀉 등의 약재의 조합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결국 滑石苦參湯은 腎元의 소모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즉 逆證의 범주에서 裏熱이 부차적으로 동반되면서 발생하는 濕熱證이 원인이 되는 表證의 亡陰證에 사용되는 처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滑石苦參湯의 主治인 “治腹痛 無泄瀉者 宜用”에 대해 고찰해보면, 흔히 泄瀉가 主症이 되는 亡陰證에서 오히려 설사보다는 복통이 주가 될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滑石苦參湯에 濕熱을 利小便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車前子가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부차적으로 동반되는 順證·逆證 중간 단계의 裏熱을 치료하는 滑石 苦參 川黃連 黃柏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병태의 핵심이 泄瀉보다는 下焦부위의 氣機不順, 특히 중간 단계의 裏熱로 인해 발생하는 腹痛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滑石苦參湯은 荊防地黃湯에 비해 熱證이 보다 많으면서 완전한 虛證으로는 접어들지 않은 단계에

10) 熟地 微溫 滋腎補血 益髓填精 烏髮黑髮 ○熟苧 補腎和腎 山茱萸(山茱 性溫 滋精益髓 腎虛耳鳴 腰膝痛止 ○山茱萸 健腎直腎
11) 車前 氣寒 瀉澀眼赤 小便能通 大便能實

12) 滑石 沈寒滑能利竅 解除煩濕熱可療渴 ○滑石 滌腎之穢氣
13) 苦參 味苦 癰腫蒼疥 下血腸風 眉脫赤癩
14) 黃連 味苦 瀉心除痞 清熱明目 厚腸止痢 ○川黃連 醒腎之眞氣
15) 黃栢 苦寒 降火滋陰 骨蒸濕熱 下血堪任 ○黃栢 收斂 腎元

서 사용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9-29 조문¹⁶⁾에서 滑石苦蔘湯과 함께 裏病의 下消證 처방인 熟地黃苦蔘湯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저 기전으로 胃熱과 大腸寒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복통과 관련되어 보다 자세히 언급하자면 9-30 조문¹⁷⁾에서 少陽人이 항상 복통을 호소하여 六味地黃湯을 사용한 예와 10여년간 간헐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滑石苦蔘湯을 사용한 예와 소아가 항상 체하고 더부룩하며 간혹 복통이 있고 허리가 아프며 口眼喎斜 초기에 獨活地黃湯을 사용한 예 등 세 임상례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복통의 변증에 있어서도 清陽上升의 문제가 주가 되는지 表陰降氣의 문제가 주가 되는지를 판별하고 病證의 주된 病所를 파악하여 적절한 처방을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治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 荊防瀉白散: 腎局 깊숙이 침투되지는 않은 實證의 裏熱이 동반되면서 병소 자체는 어느 정도 腎局으로 옮겨와 邪熱의 울체가 下焦에 발생한 表證의 亡陰證에 사용할 수 있는 身熱頭痛泄瀉 처방
- ▶ 猪苓車前子湯: 만성화 되기 전의 實證의 裏熱이 下焦에 들어가 濕熱이 下焦에 混着되어 발생한 表證의 亡陰證에 사용할 수 있는 身熱頭痛泄瀉 처방
- ▶ 荊防地黃湯: 實熱이 많지 않고 오히려 虛熱이 조장된 證에서 下焦에 濕熱이 混着되고 腎元이 소모되면서 腎局의 偏小 상태가 심화되어 少陽人의 保命之主를 大補하여야 하는 表證의 亡

陰證에 사용되는 身寒腹痛泄瀉 처방

- ▶ 滑石苦蔘湯: 腎元의 소모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즉 逆證의 범주에서 裏熱이 부차적으로 동반되면서 발생하는 濕熱證이 원인이 되는 表證의 亡陰證에 사용되는 身寒腹痛泄瀉 처방

2) 병증 분석

위의 처방 분석을 토대로 병증을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身熱頭痛泄瀉와 身寒腹痛泄瀉의 분류가 있으나 각각의 병증 범주 내에서도 그 기전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身熱頭痛泄瀉와 身寒腹痛泄瀉의 병증발전도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9-23 조문¹⁸⁾, 9-24 조문¹⁹⁾에서는 身寒腹痛泄瀉와 身熱頭痛泄瀉 중 身熱頭痛泄瀉의 亡陰證만이 譫語·動風, 즉 地黃白虎湯證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9-27 조문²⁰⁾에서 身熱頭痛이 심할 때의 처방으로 黃連導白散 및 地黃白虎湯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地黃白虎湯證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身熱頭痛泄瀉와 身寒腹痛泄瀉의 병리기전과 병증발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처방의 임상적 운용

실제 임상에서 위의 네가지 처방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素證 및 평소의 病證 경향성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荊防瀉白散·猪苓車前子湯 등의 身熱頭痛泄瀉證 처방은 평소 熱多한 少陽人에게 사용하고, 荊防地黃湯·滑石苦蔘湯 등의 身寒腹痛泄瀉證 처방은 평소 寒多한 少陽人에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이때의 熱多 및 寒多의 의미는 素證 및 病證의 寒熱 경향을 가리킨다). 평소의 病證 경향성을 관찰하여 각각

16) 9-29 少陽人 身寒腹痛泄瀉 一晝夜間 三四五次者 當用滑石苦蔘湯 身寒腹痛 二三晝夜間 無泄瀉 或艱辛一次泄瀉者 當用滑石苦蔘湯 或用熟地黃苦蔘湯

17) 9-30 嘗見 少陽人 恒有腹痛患者 用六味地黃湯 六十貼 而病愈 又見 少陽人 十餘年 腹痛患者 一次起痛 則或五六個月 或三四個月 一二個月 叫苦者 每起痛 臨時 急用滑石苦蔘湯 十餘貼 不痛時 平心靜慮 恒戒 哀心怒心 如此延拖 一周年而病愈 又見少陽人 少年兒 恒有滯證痞滿 間有腹痛腰痛 又有口眼喎斜 初證者 用獨活地黃湯 一百日內 二百貼服 使之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一百日 而身健病愈

18) 9-23 少陽人 身熱頭痛泄瀉 一二日 或三四日 而泄瀉 無故自止 身熱頭痛 不愈 大便反秘者 此危證也 距譫語不遠

19) 9-24 泄瀉後 大便 一晝夜間 艱辛一次滑利 或三四五次 小小滑利 身熱頭痛 因存者 此便秘之兆也 譫語前有此證 則譫語當在數日 譫語後 有此證 則動風必在咫尺

20) 9-27 少陽人 身熱頭痛 揚手擲足 引飲者 此險證也 雖泄瀉 必用石膏 無論泄瀉有無 當用荊防瀉白散 加黃連 瓜蒌 各一錢 或地黃白虎湯

Table 3. Composition of Medications for Bowel Irritability Appearing in *Donguisusebowon (Gabo edition)*

처방명	처방구성
柴胡四苓湯	柴胡 澤瀉 豬苓 赤茯苓 各二錢 黃連 芡實 滑石 車前子 各一錢
八味苦參湯	生地黃 四錢 苦參 地母 山茱萸 覆盆子 各二錢 赤茯苓 澤瀉 各一錢 (七味苦參湯) 加 牡丹皮 一錢 [治吐血嘔吐腹痛痞滿]

의 身熱頭痛泄瀉證 및 身寒腹痛泄瀉證 내에서도 下焦에 實熱이 鬱結되면서 발생하는 身熱頭痛泄瀉에 荊防瀉白散을 쓰고 濕熱이 混着하면서 발생하는 身熱頭痛泄瀉에 豬苓車前子湯을 쓰거나, 腎元이 소모되면서 實熱보다는 虛熱 및 寒證이 많은 身寒腹痛泄瀉에 荊防地黃湯을 쓰고 大腸局과 胃局 중간 단계의 胃熱을 기본적으로 겸하고 있으나 성한 實熱 보다는 虛熱에 더 가까운 경우에는 滑石苦參湯을 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泄瀉證의 유무로 구분을 할 경우, 앞에 언급된 9-27 조문에 근거하여 身熱頭痛에 설사증이 있거나 表病에 해당되는 경우 荊防瀉白散을 사용하고 설사증이 없거나 裏病에 해당되는 경우 地黃白虎湯을 사용한다는 것과, 身寒腹痛에 설사증이 있거나 表病에 해당되는 경우 滑石苦參湯을 사용하고 설사증이 없거나 裏病에 해당되는 경우 熟地黃苦參湯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변에서 변비 경향성이 증가 할 경우 身熱頭痛泄瀉의 경우 荊防瀉白散·黃連瀉白散·地黃白虎湯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身寒腹痛泄瀉의 경우 滑石苦參湯, 熟地黃苦參湯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甲午本』 및 『草本卷』의 亡陰證 처방 및 치료

1) 『甲午本』과 亡陰證

위에서 언급된 亡陰證의 처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甲午本』 또는 이전의 서적에서 亡陰證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었으며 어떻게 진화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甲午本』과 『草本卷』을 비롯한 이전의 서적들을 조사하여 亡陰證 처방과 관련된 내용을 역추적하였다.

우선, 『甲午本』에서는 亡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辛丑本』에 이르러서야 亡陰의 개념이 확립된 것으로 보이며 『甲午本』의 腹痛泄瀉 처방들

이 『辛丑本』의 亡陰證 처방들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辛丑本』의 9-20 조문에서 9-38 조문에 이르기까지 亡陰證과 관련된 조문의 유래 내지 유사조문을 『甲午本』에서 찾아보면 『辛丑本』 9-20²¹⁾, 9-21²²⁾ 조문과 중복되는 『甲午本』 9-26, 9-27 조문을 제외하면 『甲午本』의 9-28 조문²³⁾ 정도만이 찾아진다.

『甲午本』 9-28 조문에서는 설사보다는 복통을 주된 초점으로 잡고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복통의 원인은 “膀胱內守之眞陰虛弱 熱氣相迫”으로 제시되어 지고 있으며 柴胡四苓散·八味苦參湯 類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Table 3). 또한 설사의 유무 여부에 따라 輕重이 구분되는데, 복통이 설사와 동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腹痛而有泄瀉者 重證中輕證猶在也” “腹痛而無泄瀉者 重證中其證又險跛也”로 나누어 설사가 없는 경우를 더 중한 것으로 보고 “當用 柴胡四苓散 八味苦參湯加石膏一錢”이라고 하여 처방을 제시하였다. 이때 柴胡四苓湯의 처방구성을 살펴보면 亡陰證 처방과 유사하고 八味苦參湯의 처방구성을 살펴보면 胸膈熱證 처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腹痛而有泄瀉者”에게 柴胡四苓湯을 사용하고 “腹痛而無泄瀉者”에게 八味苦參湯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 21) 9-20 李子建 傷寒十難論曰 傷寒腹痛 亦有熱證 不可輕服溫煖藥 又曰 傷寒自利 當觀陰陽證 不可例服 溫煖及止瀉藥
- 22) 9-21 朱震亨曰 傷寒陽證 身熱脈數 煩渴引飲 大便自利 宜柴苓湯
- 23) 甲9-28 今考更定 少陽人病 微腹痛大滑泄當二三度而止者 其病必快解也而 有一種腹痛隱隱深着屢痛屢泄或但痛不泄者則 膀胱內守之眞陰虛弱 熱氣相迫之故也 傷寒病 有此證者 始發已爲重險證 不可不急治 當用 柴胡四苓散 八味苦參湯 日三四服又連日服 此證腹痛而有泄瀉者 重證中輕證猶在也 腹痛而無泄瀉者 重證中其證又險跛也 當用 柴胡四苓散 八味苦參湯加石膏一錢 少陽人病 泄瀉連三四日後 大便仍閉不通者 多成危證 最不可等閒置也 泄瀉後大便仍閉者 亦當用 柴胡四苓散 八味苦參湯加石膏 此證柴苓湯藥力單薄 重病危證快無可恃而 人參半夏阿膠甘草黃芩皆爲蠱藥 元不當用柴苓湯 卽小柴胡湯合豬苓湯者也

Table 4. 『草本卷』에 등장하는 腹痛泄瀉 처방

처방명	구성	비고
五苓散	澤瀉 三錢 赤茯苓 猪苓 各二錢 滑石 柴胡 各一錢	治運氣 熱結膀胱 夏月腹痛泄瀉
益元散	滑石末 二錢半 甘草末 五分 朱砂末 一分	治暑氣腹痛
單黃連湯	黃連 一兩 水煎服	治痢病
甘遂天一丸	甘遂 一錢 朱砂 輕粉 各一分 分作八丸	治上焦咽喉 中焦暑證 下焦痢疾 小兒驚風 大人胸痞 凡大便不快者 皆可用之 搗碎溫水或冷水調服 先用一丸 頃二時刻無應 然後再用二丸 泄下三四次爲適中 一二次爲不及 五六次過度
七味苦參湯	生地黃 四錢 苦參 知母 山茱萸 覆盆子 各二錢 赤茯苓 澤瀉 各一錢	加 木通 牡丹皮則 名八味苦參湯 治吐血 嘔吐 腸病 痞滿證
水火既濟湯	生地黃 熟地黃 知母 黃柏 山茱萸 覆盆子 苦參 柴胡 赤茯苓 澤瀉 肉苁蓉 枸杞子 各一錢	治腹痛 嘔吐 痞滿

하지만 『甲午本』에서의 亡陰證 처방에 대한 고찰은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며 『辛丑本』에서 등장하는 복잡한 기전에 대한 설명 및 처방의 “身熱頭痛泄瀉” 및 “身寒腹痛泄瀉”의 구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午本』에서는 亡陰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辛丑本』에 이르러서야 亡陰證의 개념이 확립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草本卷』과 亡陰證

다음으로 『草本卷』을 살펴보면 역시 亡陰證에 대한 인식은 아직 태동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 관찰된다. 우선 10-5 조문²⁴⁾에서 “少陽人 大便善通則 完實而無病”라고 하여 대변이 잘 통하는 것이 건강의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10-18 조문²⁵⁾에서 “少陽人 大便澁滑者病也 一日間屢次則 非惡症也”이라고 하여 대변이 무른 것 역시 병증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10-23 조문²⁶⁾, 10-28 조문²⁷⁾, 10-41 조문²⁸⁾에서 少陽人의 복통과 चे하는 병은 가벼운 증

세라고 하고 少陽人의 설사는 경한 병이라고 밝혀 『辛丑本』 9-31 조문²⁹⁾과 유사한 내용을 잠시 언급하고 있으나 亡陰證의 병증을 아직 위중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腹痛泄瀉와 관련된 처방으로는 五苓散, 益元散, 單黃連湯, 甘遂天一丸, 八味苦參湯, 水火既濟湯 정도가 主治로 腹痛泄瀉가 언급되어 있다(Table 4).

이상으로 少陽人 亡陰證 처방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IV. 考 察

- 亡陰證 病證 體系의 定立에 대한 문제 -

少陽人 亡陰證의 治方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의 문제의 중심은 亡陰證이라는 병증체계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亡陰證은 이미 앞에서

24) 草10-5 少陰人 飲食善化則 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則 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
 25) 草10-18 少陰人 平時屢噫者病也 霍亂時屢噫者 病解也 太陰人 平時屢咳者病也 重病時屢咳者 病解也 少陽人 大便澁滑者病也 一日間屢次則 非惡症也 太陽人 小便澁短者病也 二時間屢次則 非惡症也
 26) 草10-23 少陰人 頭痛發熱病 病則病也 比之冷泄則輕症也 少陽人 腹痛滯病 病則病也 比之汗咳則輕症也
 27) 草10-28 少陰人 有暴泄泄瀉過三日則 其病必重 少陽人有久泄泄瀉雖月餘 其病輕也

28) 草10-41 問 水穀之入於腸胃也 爲其所化一也 而少陽驅穀常病於熱 少陰驅穀 常病於寒者何也 曰 少陽人受穀之胃潤 而泄穀之大腸窄 譬如糞中酒釀宿釀密封則 熱氣易生也 少陰人泄穀之大腸潤 而受穀之胃窄 譬如停溜之水泉生泉益來則 寒氣易生也 是故 少陽大便一日數三次益好 少陰大便二三日一次無妨
 29) 9-31 古醫 有言頭無冷痛 腹無熱痛 此言非也. 何謂然耶. 少陰人 元來冷勝 則其頭痛 亦自非熱痛 而即冷痛也 少陽人 元來熱勝 則其腹痛 亦自非冷痛 而即熱痛也 古醫 又言汗多亡陽 下多亡陰 此言是也. 何謂然耶 少陰人 雖則冷勝 然 陰盛格陽 敗陽外遁 則煩熱而汗多也 此之謂亡陽病也 少陽人 雖則熱勝 然 陽盛格陰 敗陰內遁 則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也 亡陽亡陰病 非用藥 必死也 不急治 必死也

말한 바대로 『辛丑本』에 이르러서야 그 병증체계가 정립이 되었는데, 이러한 병증체계의 정립은 불완전한 단계의 정립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근거로는 우선 身熱頭痛泄瀉와 身寒腹痛泄瀉에 대한 구분이 있으나 少陽人의 병증체계에서 亡陰證 외에는 身熱 내지 身寒 등에 대한 서술이 제한적이어서 少陽人 체질병증의 전반을 관통하는 통일된 醫論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少陽人 병증의 기본 전제가 脾受寒表寒病證과 胃受熱裏熱病證의 表裏病證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체계 속에서 亡陰證의 身熱頭痛과 身寒腹痛은 어떠한 구도 및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는 『東醫壽世保元』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體質辨證 → 素證辨證 → 現證辨證의 치료적 접근 단계를 거치게 되는 사상체질의학적 접근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素證/病證의 체계와 亡陰證의 병증체계가 일관되게 통일된 구도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少陽人 治法 전체가 논리적 취약성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亡陰證의 寒熱구분을 表寒證의 범주 내에서 少陽人 개개인이 나타내는 병증의 경향성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무리없는 서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性의 深着으로 인한 表病의 素證을 갖는 少陽人 중에서도 기본 병증의 틀은 表寒病의 경향성을 따르나 寒證의 표현이 강한지, 熱證의 표현이 강한지에 따라 身熱頭痛泄瀉와 身寒腹痛泄瀉의 차이를 드러낸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큰 범주의 素證 내에서 다시 작은 범주의 素證이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素證/病證을 접근할 경우 『辛丑本』 9-44 조문의 치험례를 이해하는데에 무리가 없게 된다. 9-44 치험례는 荊防地黃湯 加 石膏를 사용하여 위급한 병증을 치험례인데, 荊防瀉白散 등의 身熱頭痛泄瀉 처방을 사용하지 않고 身寒腹痛泄瀉 처방인 荊防地黃湯에 오히려 石膏라는 熱證에 사용하는 약재를 가미하여 치료한 것은 身寒腹痛泄瀉의 素證을 감안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9-44 조문의 치험례가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치험례라는 것도 이러한 치료접근법에 힘을 실어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임상경험 및 치험례의 연구를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이다.

V. 結 論

少陽人 亡陰證의 治方을 분석하기 위해 『辛丑本』, 『甲午本』, 『草本卷』, 2종의 『東武遺稿』 등을 비롯한 저서 및 註釋書와 編譯書, 處方書 등을 조사한 결과 少陽人 亡陰證의 治方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少陽人의 亡陰證은 크게 身熱頭痛泄瀉 및 身寒腹痛泄瀉의 二大分類로 접근될 수 있는데, 각각의 病證 범주 내에서도 그 기전이 다양하므로 素證 및 평소의 病證 경향성을 통해 임상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2. 荊防瀉白散·猪苓車前子湯 등의 身熱頭痛泄瀉證 처방은 평소 熱多한 少陽人에게 사용하되, 荊防瀉白散은 下焦에 實熱이 鬱結되면서 발생하는 身熱頭痛泄瀉에 사용하고, 猪苓車前子湯은 濕熱이 混着하면서 발생하는 身熱頭痛泄瀉에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荊防地黃湯·滑石苦蔘湯 등의 身寒腹痛泄瀉證 처방은 평소 寒多한 少陽人에게 사용하되, 荊防地黃湯은 腎元이 소모되면서 實熱보다는 虛熱 및 寒證이 많은 身寒腹痛泄瀉에 사용하고, 滑石苦蔘湯은 大腸局과 胃局 중간 단계의 胃熱을 기본적으로 兼하고 있으나 성한 實熱 보다는 虛熱에 더 가까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草本卷』, 『甲午本』에서는 亡陰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辛丑本』에 이르러서야 亡陰證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VI. 參考文獻

1. 송일병 외.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2004.
2. Lee SK, Song IB. The study about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of Sasangin on the Dongyisusebowon..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

- (2):1-26. (korean)
3. 김용국. 亡陽, 亡陰證에 대한 증치의학과 사상의 학과의 비교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1;3(1):79-88.
 4. Lee SG, Lee EJ, Koh BH. Soyangin mangeum-disease case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3):151-154. (korean)
 5. Park HS, Joo JC, Kim HS, Bae YC.. A Case study of the Shaoyangin Mangyin Improved with Hyeong-bangjiwhang-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2):120-124. (korean)
 6. Park EA.. A Clinical case study Yin Exhausted Syndrome in two Soyangin patients.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3):210-215.(korean)
 7. Choi MK, Jung WK, Yoo JS. A Case study about soyangin Yin Exhausted Syndrome diagnosed as gout.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1):203-210. (korean)
 8. 이제마. 동의수세보원(1901년판 초판본 영인본). 서울:대성문화사. 1998.
 9. 이제마. 함산사춘 동의수세보원갑오구분. 1940.
 10. 이제마 저, 박성식 역.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 서울:집문당. 2003.
 11. 이제마. 동무유고. 평양:해동출판사. 1999.
 12. 이제마 저, 이창일 역. 동무유고. 서울:청계출판사. 1999.
 13.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1권. 서울:한미의학. 2010.
 14.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 서울:한미의학. 2010.
 15. 원지상. 동의사상신편. 서울:정담. 2002.